

농림수산식품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모니터링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감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양돈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8월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하반기 총 2,100가구, 3만5,700마리에 대해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당초 하반기 검사 예정물량은 양돈농가 1,400가구, 돼지 2만3,800마리였으나 이를 각각 50%씩 늘린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검사에 나서 현재까지 708가구, 1만2,306마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종 플루가 돼지를 통해 전염된다는 등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신종 플루가 가축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의 농장 방문 자제, 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소독·예찰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돼지, 닭, 오리 사육농장 종사자는 오는 1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될 신종 플루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덧붙여 주문했다.

‘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향 조사연구’ 중간보고회 가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향 조사연구’ 사업 1차 중간

보고회를 갖고 그간 사업 평가와 함께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와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축산업자 등의 요청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생산 및 출하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계육협회의 ‘유통협약(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축산법에 계열화사업 신설배경과 과거 축산법에서 누락시킨 원인, 축산법상 유통협약 조항 신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완 및 자료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양계협회는 축산법상에 계열화사업이 규정될 경우 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동등한 법적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계육협회의 경우 통계전수조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차기보고회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충분히 수용되도록 하되 철저히 검증된 자료가 발표될 수 있도록 축산경제연구원측에 주문했다.

가금질병 모니터링 검사 개선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지금까지 지적된 가금 질병 모니터링 검사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검사 시기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되 하반기 HPAI 예찰검사까지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단체소식

이에 따라 종계장과 '삼계씨알' 생산농가의 항원검사사로 채취수가 당초 10수에서 '3수 이상'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가금티푸스와 추백리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후보종계를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되 1차검사(120일령~산란개시 전)와 추가검사(산란이후~노계출하 전)로 구분,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검사항목중 가금티푸스, 추백리, 닭 뇌척수염, 닭전염성빈혈, 닭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양성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센터를 통해 확인검사를 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조치 방법을 일부 변경, '삼계씨알'이 가금티푸스·추백리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생산농가(계사)에 대해서는 부화장에서 부화를 금지시키고 집중 방역관리기로 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항원양성계군의 경우 항균제 투약 등 질병억제 조치를 통해 전파우려가 없도록 방역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항체·항원검사를 병행하고 있는 닭전염성빈혈증에 대해서는 항원 검출시 3종가축전염병에 의거 백신접종토록 하는 한편 닭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항원검사를 통한 감염확인시 소독 등 방역 지도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가금질병 감염실태 분석과 방역관리 개선방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5일 가금티푸스·추백리의 균분리 검사법 신설 및 혈청검사 양성률 조정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안)을 발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 인터넷 공개

오는 11월부터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1년 동안 인터넷에 업체 이름과 위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에 돼지나 닭으로 만든 가공품도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8월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나 시·도 홈페이지에 업체 명칭과 주소, 위반 농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공표해야 한다. 단,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에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이 추가됐다. 식육가공품에는 양념고기, 분쇄가공육, 갈비 가공품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품목이 쇠고기, 쌀,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가지로 돼지고기, 닭고기는 식육과 포장육만 표시대상이었다.

덧붙여 개정안은 위해성 논란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위해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위험평가가 끝나기 전에도 신속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면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고, 평가 결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산물은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해야 한다.



농·축·수산 식품안전정보 사이트 개통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농·축·수산물의 모든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한 '농수산 식품안전 정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과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나뉘어 있던 시절 따로 구축된 농산물 안전정보 시스템과 수산물 안전정보 시스템을 통합해 한 곳에서 모든 농·축·수산물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정보 시스템도 연결(링크)해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또 계약을 통해 수집한 해외 각국의 검역 정보나 새로운 학술 정보, 식품안전 관련 뉴스 등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해외의 정보를 사오거나 콘텐츠 제공자(콘텐츠 프로바이더)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또 소비자 지향성, 쌍방향 소통성을 강화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소비자의 각종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운 식품 위험 정보를 쉽게 설명하고 식품안전 검사 현황, 불합격 업체명과 사유 등을 공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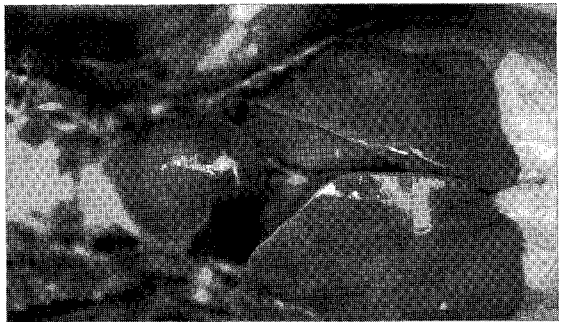
아울러 기존의 이메일 및 전화 상담 코너를 새로 단장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연계해 근무 시간에는 실시간 온라인 상담도 해줄 예정이다.

또 좀더 심도 있는 정보 교환을 위해 월 2회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e-포럼방'도 운영하기로 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foodsafety.g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닭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위생관리 및 예방대책 강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최근 5년간 검역원에 의뢰된 조류질병 중 닭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은 매년 10건 미만으로 진단되었으나 금년 8월까지 현재 10건 이상이 진단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예방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닭 아데노바이러스는 주로 어린 연령의 닭(주



기관단체소식

로 4~8주령)에서 발생하여 질병의 경과과정이 비교적 짧지만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고 빈혈과 간염 증상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병리소견으로서는 봉입체간염 및 심낭수종증을 일으킨다.

닭 아데노바이러스 단독 감염만으로는 폐사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면역억제를 유발하는 닭전염성빈혈바이러스 및 감보로바이러스 등과 혼합감염되면 폭발적인 폐사율을 나타낸다. 또한 닭아데노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종계를 통하여 질병이 전파(수직감염)되며 감염된 개체는 분변으로 다수의 바이러스를 배출하여 계군내에 질병을 전파(수평감염)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질병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일부 혈청형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만 감염경로를 고려해볼 때 종계장 및 부화장의 위생 및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계장 및 부화장의 위생수준을 가일층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종계장의 성계에 감염되면 별다른 임상증상 없이 14주 이상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어 동계 종계에 감염을 일으키고 또한 감염계의 계란에서도 바이러스가 존재하여 부화 후에도 감염개체로 남기 때문이다.

닭 아데노바이러스는 다양한 혈청형(12종)의 병원체가 존재하여 특정 혈청형으로 제조된 백신만으로 예방이 어려우므로 종계장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염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감염계가 발견된다면 즉시 도태하고 농장 실정에 맞는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일반 소독제와 외부 환경요인에 대해 비교적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의 대책만으로 병원체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원천적인 병원체의 도입이 차단되도록 청결한 닭 구입과 격리, 검사, 철저한 계사소독(0.1% 포름알데하이드액)을 실시하며, 닭전염성빈혈바이러스 및 감보로병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폐사율을 줄이면서 혼합감염을 동시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제 현안 질병 역학세미나 및 역학원론 강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외 역학전문가를 초청하여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신종플루 등 국제 현안질병에 대한 역학 세미나 및 역학원론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Technology, INTA)의 역학분야 수석연구관이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남미지역 훈련센터장인 Emilio A. LEON 박사를 초청한다.

이 기간 두 번에 걸쳐 세미나와 수의역학에 입문자들을 위한 역학원론 강의를 실시한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구제역 비발생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 청정화 유지를 위한 예방 백신 및 혈청 검사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확인된 신종플루(H1N1) 발생 양돈장의 현장 역학조사 사례 및 아르헨티나의 H5N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수의역학 원론에 대한 이틀간의 집중 강좌에서는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 등 실험실 진단 검사법 및 표본조사법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제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연습문제 풀이를 통한 실습이 이어진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매년 해외 역학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역학원론 강좌를 실시하는 등 수의역학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역학 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국제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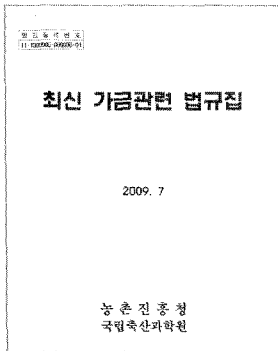
정된 법규에 대한 정보와 제도적 이해를 넓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금 관련 법규집이 필요하신 분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041-580-6701)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최신 가금관련 법규집 발간

최근 축산을 둘러싼 환경의 많은 변화로 관련법규 등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고, 축산농가 및 현장에서 개정된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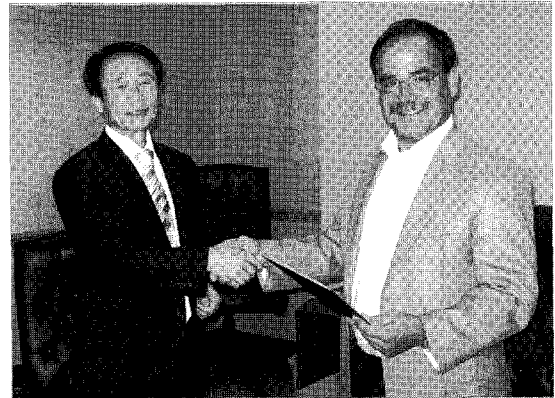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농촌진흥법 등 13가지 관련 법률 중 가금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만을 발췌하여 가금관련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신 가금관련 법규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발간되는 법규집에는 기존의 축산법령집에서 각각 분리되어 있었던 가금 분야의 법, 명령, 규칙 및 고시 등을 한 곳에 정리하고 기존 가금 관련 시설과 사양, 환경, 육종, 번식 유통에 대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 가금의 개량증식, 구조개선, 의약품 취급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해 놓았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가금관련 법령을 추가시켜 가금 산업 관계자 및 연구자, 농가 및 현장에서 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과 MOA 체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은 지난 7월 30일 미국 워싱턴주립대학(Washington State University)과 연구협력협정(MOA)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MOA 체결을 통해 연구 결과 및 정보의 공유, 연구진과 교수진의 교류, 회의 및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연구자 및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대학, 연구소, 기관과의 협력도 필요 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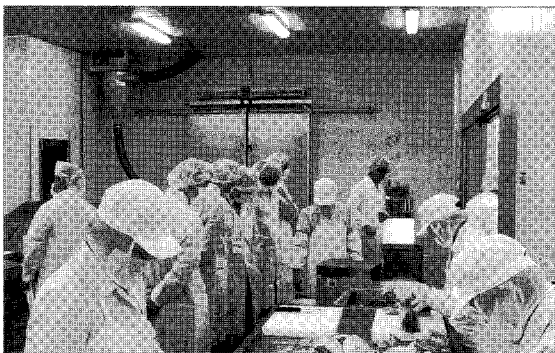


기관·단체소식

연구협력협정 체결 후 오세익 원장은 워싱턴주립대학의 댄 버나도(Dan Bernardo) 농대학장 등과 양 기관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식육판매업 HACCP 현장 방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축산물 HACCP 인지도 제고를 위한 2009년 4차 식육판매업 HACCP 현장방문을 지난 8월 27일과 28일(1박 2일)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축산기업중앙회 유재춘 회장을 비롯 지역별 지회장과 실무 담당자 24명이 참석했으며, 식육판매업소 2곳(음성청결한우, 농협성남유통센터)과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장인 (주)모란식품을 방문했다.

저녁에 실시된 세미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조장용 서기관의 농식품안전 정책 방향과 기준원의 HACCP 진행사항, 식육판매업 HACCP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으며,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와 현장 적용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축산기업중앙회 지회장과 실무 관계자들은 작은 규모로 알차게 HACCP을 운용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소를 돌아보아서 의미있었고 HACCP이 그렇게 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으며 차근차근 식육판매업 HACCP을 현장에 적용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형근 원장은 현장 방문과 토론 시간에 개진된 식육판매업 HACCP 추진에 대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식육판매업 HACCP 발전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추구하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리농장 HACCP 1호 지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5월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오리농장 HACCP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오리농장 1호 HACCP적용 농장을 지난 7월 27일자로 지정했다.

제1호 HACCP지정 오리농장인 류도현한방향오리농장(대표 유도현)은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에 위치한 30,000수 규모로서 자체 가공하여 CJ홈쇼핑, 갤러리아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번 오리농장으로서의 최초 HACCP 지정으로



인해 더욱 안전성이 확보된 오리농장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향후 다른 오리농장의 HACCP 지정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위생지원방역본부

2009년 도축검사보조원 보수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한달간 충북 충주 소재 농협교육원에서 도축검사보조원 150명을 3기수로 나눠 검사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2009년 도축검사보조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배상호 본부장은 지난 7월 23일 제1기 입교식에서 “한·미, 한·EU FTA 등 수입개방화시대에 국내 축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질병청정화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축검사원들은 정부의 축산물 위생 안전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검사원 스스로 자질 향상과 전문지식을 함양시킴으로

써 신속·정확한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피드백함으로써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담당관의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대책' 강의에 이어 '최근 소·돼지질병 발생동향', '내장검사 병변의 실제사례' 등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도축검사원들이 검사과정에서 발견한 특이병변 사례와 검사업무 개선사례 발표를 통하여 검사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대한양계협회

2009 전국양계인대회 개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오는 9월 18~19일 경북 상주에서 '2010 양계산업 새 도약의 원년'이라는 주제로 '2009 전국양계인대회'를 개최한다.

양계협회는 올해 16회째를 맞는 이번 양계인대회를 계기로 양계인의 단합과 협회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을 강화하고 양계농가 경영안정 및 안전한 양계산물 먹을거리 실현, 국제 경쟁력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핵심품목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또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상주시민들을 위한 닭고기 및 계란 요리 경연대회 등 소비홍보 행사도 준비돼 있다.

■ 홈페이지 : www.poultry.or.kr



Monthly Korean Chicken MKC

가·관·단·체·소·식

전북대학교 양계산학연합력단


유럽연합의 가금복지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움 개최



전 세계적으로 가금분야 연구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1973년 세계가금학회(WPSA)가 창설된 이래로 EU와 다른 양계 선진국에서는 가금

산업 발전에 필요한 닭의 복지 및 행동에 대한 논의가 지난 30여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관해 학술대회 등을 통해 논의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전북대학교 양계산학연합력단(단장 류경선 전북대 교수)은 지난 8월 27일 서울 aT센터 중회의실에서 한국가금학회, 한국동물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유럽연합의 가금복지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건국대 김진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저명한 가금복지학자들의 '육용종계의 복지', '육계의 복지 체계 평가', '산란계의 복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2009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개최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

'2009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맛있는 유혹, 행복한 체험'을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식육소비를 넘어서는 축산물의 애메니티(Amenity)를 부각시켜 새로운 소비문화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KLBF : Korea Livestock-Products Brand Festival)'은 올해 국내 우수 축산물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행사 명칭을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변경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의 경우 총 97개 경영체가 98개 브랜드를 갖고 참여한다. 한우는 44개(44.89%) 브랜드가,

돼지는 40개(40.81%) 브랜드가 참여한다. 가금산물의 경우 닭 5개, 계란 1개, 오리 3개 등 총 9개(9.18%) 브랜드가 참여하며, 그리고 처음으로 말 브랜드(1개)가 선보인다. 관련 산업에서도 5개 업체가 참여하며, 정책홍보관과 가공제품 및 수출제품전시관 등 5개 주제관도 운영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또 처음으로 야간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행사가 낮 시간 동안만 운영되던 것에서 벗어나 킨텍스 제전시를 앞 야외 시민광장을 축제장으로 꾸며 오후 8시까지 개장에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사 3일 동안 한우불고기과 돼지불고기, 육우 불고기덮밥, 닭과 오리고기 요리, 그리고 말고기 요리를 푸드존에서 무료로 배식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우수 축산물의 특가판매도 실시된다.